



행사의 의미와 내용

# ‘민주·인권 성지’ 광주 위상 드높였다

28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07광주세계여성평화포럼'은 국내외 저명 여성운동가와 인권운동가 2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세계 여성 인권의 실상을 진단하고, 세계 평화를 위한 여성의 역할을 천명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계여성평화포럼은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단 2차례 밖에 열리지 않은 국제행사로서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인 광주의 위상을 한껏 높이는 행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사 의미=5·18민주항쟁을 통해 이미 아시아 민주화운동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광주는 지난 해 '2006노벨평화상수상자 정상회의'를 개최해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 발돋움 했다.

여기에 여성의 시각에서 세계의 민주 인권 평화의 정신과 의미를 재조명하는 광주 세계여성평화포럼이 열림에 따라 광주는 '여성 인권 활동과 평화운동의 성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의 여성단체들이 행사를 공동주최해 한국 여성운동과 여성학의 국제적 역할을 한 단계 높였다는 점에서 지역 여성계의 위상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학술대회=27일 열리는 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은 각각 다른 역사적 배경과 민족적 구성, 다양한 문화 속에서의 여성의 삶에

## 여성·인권운동가 200여명 세계 여성인권 실상 진단 광주 평화선언 계획... 학술대회·대학생 토론회도



26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07광주세계여성평화포럼 환영 리셉션에서 박광대 광주시장과 김필식 공동위원장이 해의 참가자 대표인 도이 다카코(오른쪽) 전 일본 시민당 대표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대한 경험과 철학을 통해 세계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다. 또한 이를 통해 여성 문제의 해결방안도 모색한다.

학술회의는 다문화주의와 여성, 여성의 인권과 권력, 세계평화를 위한 여성의 역할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제3세계 국가 여성들의 인권 유린 등 기존의 기본적인 인권 개념을 재조명하는 한편, 현대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특

히 한국의 경우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른 결혼 이주 여성과 새터민 등에 대한 실태 및 대책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포럼은 단순히 여성의 인권 신장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여성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어 세계 여성들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개최 효과=수년의 도시에서 민주주의 성지로 자리매김한 광주가 세계 여성문제를 공유하면서 '지구촌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광주는 폭력에 대해 저항한 '민주의 도시'라는 상징성을 뛰어 넘어 세계 평화와 인권의 중심지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른 분야와 달리 관심이 적고 취약했던 '여성'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는 점에서 민주도시로서의 역할을 확대한 계기가 됐다.

광주시는 지난 해 개최한 노벨평화상수상자 정상회의와 이번 세계여성평화포럼을 바탕으로 이들 행사의 정례화 또는 확장성 통해 광주의 문화 자산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시는 이번 포럼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국내외 여성 및 인권 문제 행사를 주도적으로 유치, 광주 문화와 경제에 접목시키는 마케팅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명예위원장 이희호 여사 기조연설문 요약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27일 오전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이 여사의 기조연설문을 요약한다.

지난 50년간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애쓴 국민들 덕에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국 여성들의 역할은 눈부셨고 세계에서 보기 드문 자랑스런 역사로 기록됐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 등을 통해 광주는 아시아를 넘어 여성 권리와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었고 오늘 열리는 광주세계여성평화포럼 역시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자리가 될 것이다.

21세기가 여성에게 열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맞지만 여전히 빈곤, 질병, 인신매매, 폭력에 고통받고 있기도 하다. 여성에게 주어진 이런 도전을 극복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

첫째, 지구상에서 빈곤을 퇴치하는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둘째, 여성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문화적·종교적 인습은 민주주의의 보편 가치인 자유, 평등, 인권의 기준 속에서 개선돼야 한다.

셋째,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의 출산, 육아, 보육을 지원하는 복지가 확대돼야 한다. 넷째, 평화화 증진돼야 한다.

세계화 시대, 우리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문화 사회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이주민들이 공동체의 성원이 되도록 지원하고, 다문화 교육과 훈련도 필요하다.

이번 포럼이 세계의 양심적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여성들의 평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지금 이 시간에도 차별과 폭력 속에서 고통받는 세계의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값진 시간이 되길 기원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5·18 공수부대 투입 미국은 전혀 몰랐다”

## 위킴 전 한미연합사 사령관 '화려한 휴가' 제작진에 답변

5·18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주한미군 최고 책임자였던 존 위킴(80·사진) 전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미국의 사건개입 여부 등 당시 미국과 신군부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담은 e-메일을 영화제작사인 CJ엔터테인먼트에 보내왔다.

레이전 행정부 시절 미 육군참모총장을 거쳐 20년 전 퇴역한 위킴 전 사령관은 과거 미국의 광주항쟁 개입 문제를 둘러싼 진실 공방 때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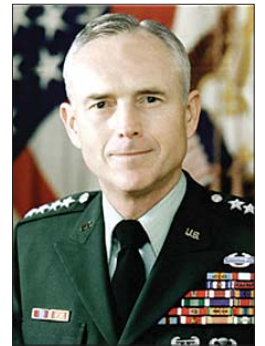
“세계적인 여성운동가와 학자들이 참여한 귀한 자리에 우리 지역 여성들이 적극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술대회가 주행사라 보니 일반 여성들은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여성권과 문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퍼포먼스와 체험부스 운영 등 참여프로그램도 많이 준비했어요.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위킴은 또 행사장 로비에 마련된 세계여성 인권·평화 구호기금 마련 행사에도 힘을 보태줄 것을 부탁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했다. 그는 “글라이스틴 주한 미 대사(2002년 사망)와 나는 군대가 광주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놀라 한국군 고위관계자

들에게 즉각 항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위킴 전 사령관은 미국의 사태 목인 의혹에 대해서도 “광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목격자나 당국자들로부터 정보를 들 수 없는 상황이라서 곤혹스러웠다”면서 “사태 발생이나 공수부대 진압을 알 도리가 없었으므로 나와 글라이스틴 대사는 한국군 투입을 묵인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당시 투입됐던) 20사단의 경우(공수부대와 달리) 실제 작전을 수행하려면 한미연합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 “그러나 당시 한국 국방장관이 ‘20사단은 폭동 진압 훈련이 잘 돼 있으므로 광주 재투입을 위해 한국군에 통제권을 잠시 이양해 달라’고 요청해 이를 수락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 “평화·화합의 장... 지역 여성계 힘도 커질 것”

## 추진위원장 김필식 동시대 이사장

“그동안 광주는 평화와 인권, 민주 도시로 인식돼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가 열려 그 위상이 더욱 확고해 졌죠. 이번 평화포럼이 여성이 중심이 돼 우리 여성의 시각으로 민주와 인권, 평화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귀한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6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3일간의 일정에 들어간 2007 광주세계여성평화포럼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필식(60·동시대 이사장)씨는 “세계적인 여성인권운동가와 학자들이 이번 포럼을 통해 여성의 인권 등과 관련된 문제점을 공유하고 그 해결책들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문화주의와 여성” 등 3가지 주제로 열리는 학술행사와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참여 여성들이 함께 발표할 ‘광주평화선언’.

“다양한 패널리스트들이 참여한 분야별 토론회를 거쳐 여성과 인권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 평화선언을 채택하게 될 겁니다. 선언의 의미를 공유하면서 세계 여성의 연대를 강화하고, 이 선언의 의미가 광주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전파되도록 힘써야 하겠죠.”

“여성 권의 신장과 평등평화 문화 실현을 위한 대학생의 역할”을 주제로 열리는 대학생 토론회(참가자 200여명) 역시 관심을 끄



는 행사다. 전국 공모를 통해 선발된 15명의 여대생은 영어로 토론을 벌이고 이스라엘의 루차마 마분 박사의 특강을 듣게 된다.

광주여성단체협의회장을 맡기도 했던 김 위원장은 특히 이번 포럼이 지역의 여성단체들의 역량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지역 여성계가 힘을 합쳐 이렇게 큰 행사를 진행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번 일을 준비하면서 힘든 것도 많았지만 배운 것도 많고 많죠. 한국 여성운동과 여성학의 역할

을 한단계 높인 것은 물론이고, 지역 단체들에게도 큰 자극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위원장은 지역 여성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최근 수차례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다.

“세계적인 여성운동가와 학자들이 참여한 귀한 자리에 우리 지역 여성들이 적극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술대회가 주행사라 보니 일반 여성들은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여성권과 문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퍼포먼스와 체험부스 운영 등 참여프로그램도 많이 준비했어요.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SASA** FOR CHILD & JUNIOR ROOM

SASA&틈과제리의 새로운 이름 "SASA" 아이들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도약해가는 새로운 SASA의 모습을 기대해주세요.



**최고의 A/S**  
아동가구 13년! 아동학생가구 시장의 전문성을 세워나갑니다. **신속한 정비:** 제품 배송과 동시에 고객님의 정보를 전산화하여 A/S신청 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처리:** SASA 만이 SASA 가구를 A/S를 할 수 있으며, 수리하는 시간도 단축됩니다. **저렴한 비용:** 제품 결함시 1년간 무상A/S, 이후에도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중 불편한 점이 생기면 A/S센터에 연락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A/S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최고의 Design**  
프린세스 원목 시리즈 출시  
프린세스 원목시리즈는 미술품 원목을 사용한 친환경 제품입니다. 가볍고 미려한 목리(나무결)를 가지고 있으며, 집성목으로 가공했기에, 웅이, 뒤통림이 없습니다. 사이즈가 넉넉해 어린자녀라면 부모님과 함께 잘 수 있으며, 중고생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국 A/S센터 대표번호:1588-4434  
홈페이지 www.sasakid.co.kr

# 베트남 국제결혼

지금 당신의 **신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오자이 국제결혼**이 함께합니다.

**본사만의 장점**

1. 본사가 베트남현지에서 위치하여 결혼비용 완전 거품제거-실속결혼비용
2. 국내 유명 결혼정보업체 현지 대행사로 풍부한 성혼 노하우 축적
3. 현지 최다 여성회원 보유
4. 배우자의 신상을 정확히 파악 그에 맞는 상대여성 과 초·재혼·만혼별 맞춤형주선
5. 신부대상 한글, 한국문화, 예절교육을 입국전 실시하여 국내적응지원

**베트남 결혼수수료 무료 고충상담**

대상 : 베트남 결혼여행 후 결혼수속 지연으로 4개월이 지나도 신부가 입국하지 못한 경우 본사 베트남 현지 직원들이 문제점을 시원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문의 전화** 062)232-8966  
010-5256-8966

베/트/남/전/문 -----  
**아오자이 국제결혼**  
광주시 동구 충장로4가 55-1 금양오피스텔 1003호